



인터뷰 뮤즈터치 비주얼 아트 매거진

니콜 로마인,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탐구자이자, 집사이며, 움직임의 시인이고, 교사이자 학생이며, 내가 나 자신을 발견하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비록 그 세상이 나를 산산조각 낼지라도 말입니다. 춤은 내 모국어이고, 예술은 내가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입니다. 나는 매일 적어도 한 번은 사랑에 빠집니다. 나는 호기심이 많고 발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충분하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큰 소리로 울기도 합니다. 또한 많이 웃고, 내가 하는 거의 모든 일에 온 마음을 다합니다.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경이로움 속에 사는 것 같고, 때로는 '현실' 세계보다 상상 속을 헤매는 것이 더 편안합니다. 나는 독서를 좋아하고, 항상 배우고 성장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항상 알지는 못하더라도요. 나는 좋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나는 내면에서 외면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세상에 내가 할 수 있는 한 많은 것을 가져오고 싶습니다.

무엇이 당신에게 영감을 주나요?

열정. 헌신. 용기. 꽃잎 하나, 동물, 나무, 그리고 자연의 모든 것. 잘 만들어진 모든 예술, 진실에서 우러나오는 창의성. 수많은 예술가들이 제게 영감을 줍니다. 마이클 파크스, 안 바슐리에, 릴케, 에밀리 디킨슨, 마야 안젤루, 에디트 피아프, 정말 많은 예술가들이요! 아름다움은 제게 영감을 주고, 동시에 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신비주의자들, 빙엔의 힐데가르트, 루미, 그리고 도덕경. 그리고... 제가 오랫동안 사랑해 온 Musetouch Visual Arts Magazine. Moon이 이곳에 도착해서 정말 영광입니다!

당신의 예술적 인생관은 무엇입니까?

빅토르 프랭클의 『인간의 의미를 찾아서』에서 그는 우리가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를 인식하고 참여해야 하며, 그렇게 할 때 사랑을 발견하게 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저는 창조하는 것에서 사랑을 찾습니다.

저는 창작 자체가 사랑의 행위라고 믿습니다. 글쓰기, 춤추기, 그림 그리기, 정원 가꾸기, 음악 만들기 등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창의적인 노력은 상상의 세계로 나아갈 기회를 제공하며, 상상력은 양자 이론이 탐구하는 무한한 잠재력의 영역입니다.

예술적 과정은 자연이 매 순간 완벽하게 보여주듯, 삶 자체가 끊임없는 창조적 노력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바로 조화입니다. 창조적인 과정과 친밀하게 연결되는 것이 바로 살아있음의 본질입니다. 저는 창조적 노력 그 자체입니다! 저에게 친밀함과 진실은 모든 예술 형태의 핵심입니다. 예술은 우리가 공유하는 생동감에 대한 이야기를 나타내며, 저는 이 이야기를 <문>에서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예술은 저에게 부르고, 노래하고, 온전히 살아있으라고, 느끼고, 현재에 집중하고, 존재하라고 요구합니다. 우리 모두는 만들어가는 걸작입니다.

발레가 당신의 첫사랑이었는데...그것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_____

여덟 살 때 처음 발레 수업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진지하고 열정적이었습니다. 첫눈에 반한 사랑이었고, 저에게는 큰 탈출구였고, 구원의 은총이었습니다. 아름다움을 처음 경험한 순간이었고, 그 무엇보다 그 아름다움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발레 수업은 제게 이성을 넘어 사랑할 무언가를 주었고, 제 온 마음을 쏟아부을 수 있는 무언가였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타티아나 도쿠도프스카 선생님을 제 1차 스승으로 모시는 행운을 누렸습니다. 마린스키 극장의 프리마 발레리나 중 한 명에게서 수업을 받으신 분이었죠. 그녀는 정말 열정적인 선생님이셨고, 저는 그녀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어린 시절은 힘들었습니다. 발레는 제게 방향 감각을 주는 유일한 것이었고, 제게는 의미가 있었고, 자주 넘어지곤 했지만, 그때마다 영광으로 느껴졌습니다. 발레 교실은 체계적이고 진지하며 규율이 잘 잡혀 있었고, 세상에서 잘 지내려고 애쓰던 제 모든 혼란을 가라앉혀 주는 곳이었습니다. 순수한 움직임 속에서 저는 자유롭고 생동감 넘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춤은 제게 소명이었고, 18살이 되어 파리에서 재즈 수업을 받았고, 그것이 제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세계 최고의 재즈 댄서들과 함께 수업을 받았지만, 발레는 훗날 제 모든 안무 작품의 중심에 항상 자리 잡았습니다.



엘리자베스 테일러, 마돈나, 재닛 잭슨, 앤디 윌리엄스 등 놀라운 아티스트들과 함께 작업하셨는데요... 그런 유명인들과 함께 작업하는 게 어땠나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인간적이고, 저는 유명해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항상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예술가들은 언제나 함께 일하기 좋았고, 매우 친절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공연 예술계에서 일하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유명하든, 어떤 삶을 살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과 영혼을 바칩니다.

여러분의 놀라운 '문' 프로젝트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문은 상상의 세계를 여행하며 달을 찾고 자신의 진실을 발견하는 소녀의 서사적이고 신비로운 모험을 다룬 작품입니다.

전반부는 매우 세련된 스팀펑크 도시, 빅토리아를 배경으로 합니다. 이곳은 사람들이 평범함의 노예가 되어 거짓된 환상에 자신을 잃어버린 회색빛 세상입니다. 빛을 갈구하며 눈물을 훔치는 눈물의 여주인, 증기 동력 휠체어를 타고 돌아다니지만 사실은 장난꾸러기 신탁인 까마귀 신사와 같은 인물들을 만납니다. 쓰레기통에 살면서 소녀와 사랑에 빠진 러비시도 있습니다. 상류층을 섬기는 드론, 공작과 공작부인의 애완동물인 카스트라토, 그리고 물론 도시 외곽의 달빛 아래 춤을 추며 위안을 찾는 소녀도 있습니다. 후반부는 가능성의 영역에서 펼쳐지는데, 빅토리아의 인물들은 꿈의 자신이 됩니다. 여름은 상상의 세계이며 찾을 수 없는 곳에서 무언가를 찾고, 겨울은 안주와 편안함의 함정에 빠지고, 봄은 부족과 소속감에 대한 원초적인 욕구를 불러일으키며, 가을은 소녀를 눈물의 여주인에게 인도합니다. 소녀의 이야기는 실제로 용기, 항복, 초월에 관한 것입니다.

안무의 기본은 발레에 기반을 두지만, 다른 스타일의 요소들도 포함될 것입니다. 제 희망 중 하나는

더 넓은 관객층을 확보하고, 전통 발레를 평소에는 보지 않을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상상의 세계에 살고 있지만 오늘날 세상에도 의미 있는 캐릭터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캐릭터들은 스스로 만들어냈다고 해야 할까요. 그냥 "안녕하세요, 당신은 누구세요?"라고 말하고 종이에 적어 넣었을 뿐입니다.

작곡가 데이브 클로츠와 릴리아 유르척처럼 놀라운 아티스트들이 함께했습니다. 얼마 전 릴리아가 작곡한 별의 찬가(Canticle of the Stars)가 완성되었는데, 정말 신성합니다. 사라 레메쉬, 브라이언 스쿠그, 매튜 소이벨먼의 놀라운 목소리가 이 곡에 생명력을 불어넣습니다. 뛰어난 테너 브라이언이 등장하는 순간이 있는데, 처음 들었을 때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웹사이트에 짧은 영상이 있습니다.

데이브는 '눈물의 여주인'으로 최우수 영화 음악상을 여러 번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릴리아와 데이브가 함께 만든 달 테마곡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연주해 보고 싶네요! 첼로와 그리움은 소녀의 죽음을 애도하는 달의 흐르는 슬픔을 표현합니다. 지금까지 만들어 온 음악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문은 춤, 음악, 산문, 그리고 목소리 등 다양한 문화와 스타일을 하나로 모읍니다. 저는 오늘날 이용 가능한 놀라운 기술들을 활용하여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예술 형식을 완벽하게 융합하여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매혹적인 이야기를 들려주는 진정한 공연 예술의 향연이 될 것입니다.

달은 깨어 있는 세상으로 나오기를 기다리는 꿈입니다.' 아름다운 설명이네요.
니콜, 어떤 종류의 꿈인가요?

희망과 변화에 대한 꿈이자, 그것이 우리 각자와 우리 모두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꿈입니다. 자아를 초월하고, 자아를 넘어 빛이 되는 꿈입니다. 마치 달이 그토록 부드럽게 세상을 비추듯이... 세상을 밝히는 꿈입니다.

그토록 신비롭고, 의미 있고, 거대한 일을 하는 기분은 어떤가요?

정말 아름다운 질문이네요! 미카엘 아이반호프의 명언이 생각나네요. "빛으로 하는 이 일보다 더 가치 있고, 영광스럽고, 강력한 일은 없다."

댄서가 되라는 소명과 아주 비슷해요. 마치 신성한 계약처럼 느껴져요.

지난 5년 동안, 몇 번이나 그 책을 내려놓으려 했지만... 서랍에 넣어두고 좀 더 실용적인 일에 집중하려고 할 때마다 마치 제 안의 무언가가 시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느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물을 흘리며 깨어났고, 하루 종일 웅덩이에 웅덩이를 팠다가 다음 날 아침 다시 눈물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별들이 잠잠 해졌습니다. 이 상태로 뭘 할 수 있을까요? 다시 그 책을 집어 들기 전까지 세상은 제자리로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작곡가 데이브에게 이메일을 보내 "좋아요, 저축한 돈이 좀 있는데, 뭘 하면 될까요?"라고 말할 때까지 별들은 제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가슴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달에는 세 명의 원로가 있는데, 그들은 이야기를 이끌어가며 우리가 귀 기울이면 언제나 얻을 수 있는 지혜를 상징합니다. 그중 한 명의 대본에는 "내 인생의 예술가가 된다는 것은 저주이자 영광입니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제가 느낀 감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때로는 신이 나고,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극적으로 들리지 않나요? 하지만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전혀 말이 안 되는 일이라도 그저 일에 임하고 끝까지 해내는 것입니다.

은퇴를 위해 저축하는 것은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일이지만, 저에게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문에게 주는 것이 완전히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다행히 저와 문을 믿어주는 든든하고 사랑 넘치는 파트너가 있고, 그 과정에서 저를 아껴주고 아낌없이 기부해 준 훌륭하고 아름답고 관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은 제게 선물과도 같은 존재이고, 제 책임은 온 마음을 다해 그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말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우리는 일하고, 창조하고, 꿈을 꾸어야 합니다. 저는 항상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제가 세상에 무엇을 가져다줄 수 있을까요? 저는 더욱 평화롭고, 지속 가능하며, 따뜻한 세상에 기여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http://www.musetouch.org/>

당신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전 세계와 달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풀 오케스트라와 캐스트를 구성하여 이 공연을 전 세계 투어로 이끌고 싶습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고 싶습니다.

누가 알겠어요? 영화 같은 다른 형태로 나올지도 모르죠. 저는 열려 있어요.

어떻게 세상에 나타나든, 달이 사람들이 살아있다는 것의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 주기를 바랍니다. 가끔은 그 경이로움이 얼마나 놀라운지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냥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사람들이 달에서 영감을 받아 자신만의 가능성을 탐구하고 상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자신과 세상에 대한 더 큰 비전을 제시하는 작품을 만들고 싶습니다. 문이 모두에게 빛과 사랑, 그리고 아름다움을 전하는 홍보대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미래에 자신과 '문'은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_____

지혜로운 고목나무 아래 앉아 사랑하는 이와 손을 잡고, 그 위에는 중절모를 벗는 까마귀 한 마리가 앉아 있다. 그 위로는 달이 하늘에 떠 있고, 우리는 모두 함께 한숨을 쉬며 말한다...

"우리가 해냈어요. 오! 감사합니다."

마이아 실바 인터뷰

<https://musetouch.org>

